법회안내

무진법장사 (02)932-2333
초심일법화성
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광명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엄장소멸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참회복발원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합동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지역법등법회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
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주지 법장스님

백암사 (0363)442-3287
신교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연승사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30분
장좌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법사 박혜욱

내원사 (02)941-2011~3
초하루기도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안흥사 (0343)73-6029
초하루기도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복과 지혜의 인연맺자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불보(佛寶)종찰 통도사는 30일부터 12월29일까지 1개월간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의 주교재로 사용될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진리의 실상을 설하신 대승법문으로, 〈화엄경〉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면 복과 지혜를 성취하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제방 큰스님들의 법문으로 열리는 화엄산림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공덕을 지을 수 있을 듯. 동참비 10만원. (0523)82-7182

자비로 피우는 연꽃
서구복지관 자원봉사 발대

불심도 고취시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도영스님)은 12월5일 자원봉사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다.

고아원, 재활원, 양로원 등에서 활동할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교육은 위급시 구호요령과 장애인간호법을 교육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생각해 보자. (042)488-6297

참불자로 거듭납시다
원각사 보살계 수계

불자라면 누구나 수계를 하고 법명을 받아야 한다. 참불자로 거듭나는 기회인 보살계 수계법회가 23일 오후 7시 통도사 분원 일산 원각사(주지 명덕스님)에서 열린다.

보살계는 〈범망경·梵網經〉 하권의 10중대계와 48경계를 따로 뽑은 〈보살계경·菩薩戒經〉에 근거하는데 재가자가 생활 속에서 지킬 계율 10개 덕목을 지칭한다. 극락선원의 금담스님이 수계법사로 증명하며 수계자들은 참회와 함께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서원을 하게 된다. (0344)913-7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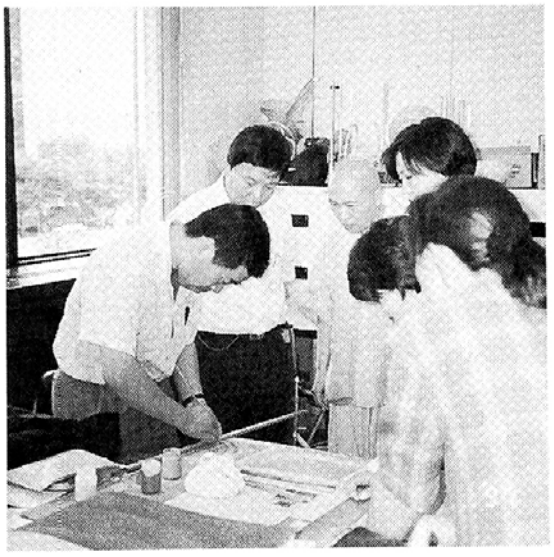
사바번뇌 씻어줄 법음
부산구도회 목요법회

삶과 직결된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강좌가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 주최로 열린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구도회 법당에서 마련되는 이 강좌는 〈소품반야경〉(권기종교수), 〈능엄경〉(각성스님), 〈금강경오가해〉(지안스님), 〈유마경〉(정병조교수)이 매주 번갈아 강의된다. 특히 20일에는 지안스님이 〈금강경오가해〉에 담겨진 〈금강경〉의 역사적 흐름을 소개하며, 27일에는 정병조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과)가 〈유마경〉에 나타나 있는 대승보살의 실천도와 재가신도의 종교적 덕목을 설명한다. (051)514-5949

불심 있는 예술세계
불교문화센터 강좌

경전, 사상, 불화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불교강좌가 개설된다.


◇불교문화센터에서 김익홍씨와 함께 실습에 임하는 수강생들의 만학열이 뜨겁다.

불교문화센터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여는 이번 강좌에는 혜담스님의 〈지장경보살본원경〉, 혜거스님의 〈서문〉, 최봉수교수의 '불교사상강좌', 김익홍씨의 '불화그리기', 장동백화백의 '유화' 등이 마련돼 있다.

불교교리와 사상은 물론 불교미술을 이해하려는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703-0108

마곡사의 아름다움
석불문화연 공주답사

'절은 고갯마루 아래에 있었고 십여 리 길가에 푸른 시냇물과 흰 바위가 있어 저절로 눈이 트였다.' 조선 숙종때의 문신 송상기는 〈유마곡사기〉에서 마곡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런 아름다움과 공주 일대의 석불을 친견하기 위해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3일 답사기행을 떠난다.

이날 행사는 라마교 형식을 취한 오층석탑(보물 제799호)과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김구선생 기념비로 잘 알려진 마곡사와 무녕왕릉, 계유명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 서혈사지 출토 석가 여래좌상 등을 둘러보게 된다. (02)760-5171

사람과 자연은 하나
'맑고향기…' 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23일 계룡산 갑사로 생태기행을 떠난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기행은 남매탑의 전설이 얽혀 있는 갑사와 공주군청 야영장 건설로 오염돼 가는 갑사·인근의 자연환경을 둘러 본다.

이번 기행을 통해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 앞에 훼손돼가는 수행도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 (02)741-4696

게 시 판

♣ 알림

△영화감상문 모집=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20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감상문 모집 '새싹들의 글잔치'를 개최한다. 저학년은 '101마리의 강아지', 고학년은 '피노키오'를 보고 감상문을 보내면 된다. (051)363-2063

△'어머니' 소재 詩공모=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올 연말 개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보살선원 설립을 기념하여 30일까지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詩)를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1인 미발표 2작품 이하로 2백자원고지 3매 내외이며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은 12월 중순 보살선원 준공식때 갖는다. (02)203-3677

△무료 신경과진료=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흥스님)은 20일 오후 2시 복지관내 2층 진료실에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신경과진료(담당의 김정익 동서병원 의무원장)를 실시한다. (0551)31-8017~9

△반아동산 생활발표회=신흥사복지원(원장 도후) 부설 반야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12월 1~2일 양일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생활발표회를 개최한다. (0392)635-0106

♣ 강좌

△겨울불교학교 지도자=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22, 23일 1박2일간 양재동 구룡사에서 제2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수화 통역사 준비반=한누리포교회(회장 박인철)는 26일부터 수화 기초반·통역사 준비반을 개설한다. 매주 수요일 주1회 강의하며 교육기간은 4개월. (02)738-5973

△수화·점자 기초반=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2월8일부터 3개월 과정의 수화·점자 기초강좌를 개설한다. 회비는 10만원이며 교재비는 무료. (02)720-4528

△색종이 접기=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유아초등반과 주부 취미반을 대상으로 문양접기, 모빌, 입체도형 등 색종이 접기 강좌를 갖는다. (042)633-1141

△가정제과·제빵=신도림복지관(관장 신윤진)은 여성교양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가정 제과·제빵 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강료는 2만5천원. (02)631-9792~4

♣ 모집

△동국대불교대학원=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이영자)은 21일까지 98학년도 전기(야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형은 12월1일 오후3시. (02)260-3097

△화엄학림 학인=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연관)은 제4기 학인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2월1일부터 98년 2월21일까지. (0671)34-3031

♣ 전시

△유아포교교재·불화=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11월 22~23일 同대학 전시실에서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전시회와 불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511-2026

♣ 순례

△보타낙가산=반야여행사(사장 현근스님)는 20일까지 중국 보타낙가산으로 떠날 구도순례단을 모집한다. (02)730-0020

△인도·네팔=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3일부터 12월5일까지 12박13일 동안 인도·네팔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22-0108

♣ 부음

△김종구 현대불교신문사 대구지사장 부친 김중곤(75세)씨가 10일 오전9시 타계했다.

나의 수행일기

김 승 일

〈前 코리아포스트 칼럼니스트〉

"불상 모으다 불자 됐어요"
신문칼럼·인터넷 통해 교포사회에 포교

오온(五蘊) 덩어리인 이 한몸 애지중지 하느라 많은 세월 동안 허공의 꽃을 피워왔다. 그런 내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불은(佛恩)이라 생각한다.

나는 수년전 여행차 왔다가 자연경관에 매료돼 정착한 이곳 시애틀에서 불상 수집을 계기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불상 수집, 이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어느날 길을 가다 진열장 구석에 놓여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상점으로 들어 갔다. 자세히 보니 조그마한 불상이었다. 당시 불자는 아니었지만 호기심에서 그 불상을 즉석에서 샀다. 정교한 목조 아미타불이었다.

오랜 세월의 향(香) 내음이 배어 있었고 초의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불상을 책상 위에 모셔 놓고 이런 생각에 잠겼다. "그 옛날 누군가 고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오면서 믿음의 상징으로 가슴에 꼭 안고 온 불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불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불법을 되새기며 난관을 극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불상이 골동품점의 한쪽 구석에 방치된 것일까? 나름대로 짐작이 갔다. 기독교 왕국인 미국에 와서 나만 외톨이로 부처님을 믿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앙을 하루아침에 바꾼 한인들이 많았을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니 나는 그들의 정신과 함께 내동댕이 쳐진 불상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열심히 불상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언젠가 부처님 법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회향하겠다는 뜻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

불상 모으는 일을 시작하며 나에겐 또다른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불상만을 수집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체계적으로 익혀 불교의 지식도 함께 머리속에 수집(?)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산불교대학 통신반에 등록했다. 일년 남짓 명강사들의 통신강의를 받으면서 불교에 흥미를 느꼈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도 배우게 됐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교포 불자들을 가끔 접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나를 포함해 불자들이 교리에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종교인들이 무턱대고 불상은 우상이라 몰아세워도 불상의 본래 의미와 불교의 역사 등을 자신있게 설명해 줄 불자들이 많지 않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더 불교의 지식을 넓혀 교포 불자들에게 힘이 돼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글 불서뿐 아니라 영어로 된 불서들도 구해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 교포 청년 불자들에게 교리와 신행상담도 해주었고 인터넷에 불교를 소개하기도 했다. 동산불교대학의 청강은 이렇듯 나에게 불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이런 신행활동을 펴던 중 나에게 잊지 못할 일이 찾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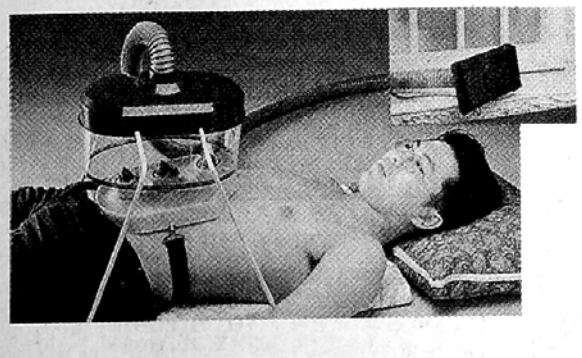
시애틀을 거점으로 한 미국 북부지역 한인교포 주간지 '코리아 포스트'의 종교 칼럼을 써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기독교 일색인 미국 사회에서 1백8회에 걸쳐 2년간 연재했던 나의 칼럼은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기독교 신자를 비롯 목사들까지도 전화를 걸어 많이 격려해 주었다. 때론 피로 누적으로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인쇄 매체로 포교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마칠 수 있었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었다. 포교의 기쁨 또한 컸다.

이제는 또 다른 원을 세웠다. 한국에 있는 동산반야회와 함께 시애틀내에서 '불서나눠보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쉽게 불서를 구할 수 없는 이곳 교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책으로 불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고국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산을 오르며 지송한 모든 염불을 남북통일이 되는 날 백두산 산정에서 회향하려 한다.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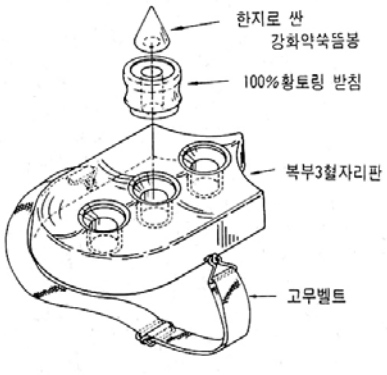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 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